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영수

달고 요요한 그림습 / 6월 21일요일경호

6.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인 이해

여호와의 주권에 관한 선지자의 재확인

야모스, 호세아, 렘 1-29장

이스라엘이 '선민의식' (지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따른 교만함으로 언약을 왜곡시켜 해석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다시금 바로 잡으려 하였다. 선지자들은 새로운 이념이나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선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방법이나 생각, 또는 그 어떤 이론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첫 언약에 담긴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지 않고 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명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유지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는 매우 달랐다. 제사장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으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인 말씀만을 선포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선포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것을 느꼈을 때 심하게 반감을 사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이방신들을 삼키지 말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혼란되었다. 한 손에 여호와와, 다른 한 손엔 세상과 이방의 신(神)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것들을 동경하면서 세상과 점점 융화해 나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혼란주의에 빠졌단 말인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선민임을 드러내며 동시에 이방들에게 인정받고 존경과 명예를 얻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방들과도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혼란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으로 착각하고(렘 33:24, 29). 이 땅의 것들과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이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그들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엘리야는 이것을 지적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좇을 것을 촉구하였다(왕상 18:21).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엘리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을 책망하였다(암 2:6-7; 4:1; 5:10; 2:4, 4:6, 6:3-4).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였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4:6).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인가? 절대로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다.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예배만이'는 그들의 무지함을 지시하였고(렘 2:8), '산바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주장한다. 엘리야는 못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고백했다(왕상 3:4, 7:26).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주권을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만국의 주인이시니(렘 10:24), 모든 것이 주의를 선포하였었다(27-8).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사 1:10), 이것을 따르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서슴없이 외쳤지만(사 2:22). 그러나 선지자들은 유신론자나 율법사 또는 신본주의 철학자가 아니며, 지도자나 정치가, 학자나 상업가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외적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인간의 모든 전성을 폐하시길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신인인 것과 자신들의 행위와 언행, 기도와 헌금 그리고 명예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셨다(암 4:4-5). 더 이상 자신을 행해서 노래하지 말라고 하셨고(렘 5:23), 이스라엘의 행사와 절기와 희락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렘 2:11). 또한 이스라엘의 신들과 그들의 책과 성서는 가시고 마땅한 법은 타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사 1:12-15), 반제나 소제, 화제에 초조도 열납하지 아

2002년도 제4차 성찬식

다음 주일(7월 7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오늘날에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명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쁘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께서 재창신 선한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바라는, 다음 주일에 시행하게 될 2002년도 제4차 성찬식에 참여할 충분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바와 각자를 가지고 주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

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암 5:21-2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애를 원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며(호 6:6),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는 분임을 명확하게 선포해 하셨다(6:6-8).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적당히 안주시키려 하고 언제나 변하는 시대적 가치관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한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을 야기(起)시키는 추태로 악한 영의 추구가. 확실히, 이러한 자들은 거짓조이다. 태초의 하나님의 의지, 십자가로 되돌아가 하는 교회의 본질을 소멸시키고, 마침내 십자가를 부러뜨리라는 악한 영의 음모에 빠진 바알의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추구하려고 복음을 혼합해서라도 안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절하기 위해 세상의 기분을 맞추어야 할 필요도, 세상화와 타협은 복음에 대한 왜곡의 시작이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것으로 끌어내리려는 마귀의 음모이다. 만일 세상이 동경하지 않거나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혼란한다면 반드시 기형적 기독교 신앙을 낳게 될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기 대가를 받든 시 지르게 될 것이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데에는 어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고 단순히 부지기만 하면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길을 걷게 하셨다(렘 21:8). 선지자들에게 중도(中途)는 없다. 오직 세속적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망'의 길과 자기를 부린 한 여수를 따르는 '생명의 길'만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뢰 그리고 복종만이 필요했으니,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이다.

신비적 연합의 성립

간담회

신비적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연합(union with the Christ)'이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에서 나온 용어이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비적(Mystical)란 단어는 '거룩함, 숨겨진' 그래서 '영'이란 의미로 이해되며, 연합(union)이란 말은 '교제, 하나됨', '참여, 마음 속에 거함'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제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일치함', '그리스도와 대제사장들의 연합'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혁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백성 사이의 연합이라고 생각되고 영적인 연합이라고. 이 연애에 의해 그리스도의 그 백성의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대다수라고 생각되고 있다. 물론 신비적 연합의 메커니즘은 성경이다.'

그럼 이 신비적 연합은 어떻게 생명을 대하는가? 바울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요 5:17,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들 6:1-4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엡 3:7, 갈 2:20)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대해 가르침은 그 본질상, 그리스도 우리 사이는 별다른 말 수 없는 본래적 연합과 있음을 말한다. 비록적요 예사니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엡 1:22-23)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동일 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사항은 복음사도 사가 나타내다 15:1-7.

둘이와 신비적 연합은 생명의 우리 사이의 연합이라 신자와 신자의 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어 사가 지체가 되신다(골 2:18). 신자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2:12-14, 갈 6:4-5) 17:22 결국 이 두 부분의 신비적 이해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사가 머리라고 믿고 연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의 사가 지체로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더 나아가 감속사두며 감사를 조련인가? 더 나아가 우리의 책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성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가리키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이 안에 있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성도들이 함께 연합된 지체라는 것을 통해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살아야 할 것이다(골 3:12, 엡 4:14-5).

이제에서 가리켜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기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김 용 덕 (목사, 2교구지도자)

Today's Lord's Supper (Isaiah 50:4~9)

"...Take eat; this is My body.

*...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

In this day, there are a lot of churches, worldwide, focusing on church activities. Church activities are an important aspect of church life. They are a determining factor on whether a church grows or dies. Churches with little to no activity are dying, losing congregation members. Hence, today's churches design and plan special Bible classes, prayer groups, adult ministries, college and high school ministries, children's ministries, and so on, to facilitate church growth. These activities bring people to church. Indeed, many churches are expending an enormous amount of effort, money, and time to attract members so that their churches won't die out. But let's think over the nature of the church. What is the church? It is the body of Christ. Christ set-up the Lord's Supper. He commands us,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How serious are you today about this activity? How fervent are our pastors, elders, and church leaders? Are you and they more concerned about other church activities, or are you and they focused on obeying our King, and following the Messiah's commandment?

The first Lord's Supper took place during Passover. Passover is like Israel's birthday. God performed a most blessed miracle; He took human slaves and turned them into His people. In remembrance of that holy event, His people slay the lamb of God. With this perspective, the 21st century Jews perform a most significant activity for the Passover meal. But Jesus, He put aside the Passover dinner, and began a new memorial celebration. He took the bread, blessed it, broke it, and told His disciples, "Take eat; this is My body." He even took His cup, gave thanks, and handed it to His disciples,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 How significant is Jesus' words? His statement is so clear! It has such deep meaning. Whereas God spared the Israelites from death with the lamb's blood painted on the doorposts; He now spares all who believe in Jesus, the true Lamb of God, from eternal death. Jesus sacrificed His life for us; He sacrificed His body for us! Are you really serious about participating in this activity?

One of the wonderful truths Jesus shares with us is in His statement,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Wow! Jesus is talking about heaven, not the Garden of Eden, or Hawaii, or any worldly destination. He speaks of His Father's kingdom. Can you imagine that there's wine, grape plants, from which we are going to drink there, in heaven, with Jesus? Jesus' words to His disciples confirm that He is going to die, and that He is going to live

again. It explains the past and future to us. Jesus will have a place for us at His table, and we will have a wonderful celebration in the kingdom of God. Are you listening to what Jesus said? It's a small statement with a big blessing. Paul even elaborate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Looking back on Christ's death and looking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is the same as Jesus drinking now, dying, and drinking again in His Father's kingdom. There's a future. There's hope. There's blessing through His death.

Jesus didn't mention here in today's Scripture passage His life, miracles, or teachings. He didn't ask us to proclaim these things at His table. How many churches expound upon His greatness in these things during the Lord's Supper? We all know how wonderful and perfectly sinless His life was, is, and will always be. He was the spotless Lamb of God. We all know how powerful His teachings were, are, and will always be. The Bible clearly differentiates between the Pharisees, Scribes, and Priests teachings and Jesus'. We all know how amazing His miracles were, are, and will always be.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He healed Mary Magdalene of seven demons, He fed five thousand people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He walked on water, He calmed a stormy sea, and performed so many more incredible miracles. But He doesn't mention these things, He mentions His death. We are to proclaim, at this time, His death. His body and blood are not shown in a glorious manner, but are seen as crushed. For the lost human, the sinner, how crucial it is to connect with His death.

After the Lord's Supper, Jesus and His disciples sang a hymn and proceeded to the Mount of Olives (v. 30). There He was caught. His body (broken bread) and His blood (the cup of wine) were sacrificed for our redemption. His body and blood paid for our sin of death. His body and blood cleansed our sins. Jesus'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and remember our future reunion in God's kingdom with its joy and fellowship.

The Lord's Supper is a sign as to the past and is a seal as to the future. Jesus' told of His death and of His new meeting in heaven. How sacred is the Lord's Supper? It is the highest activity of worship in the church, but the church doesn't hold it above all else. In its observance, we come nearest to the work and worship of heaven itself. Today you are called to meet with this wonderful Savior in this sacred and solemn Supper. Don't partake of this sacrament ignorantly, irreverently, or uncharitably. We must take it in a manner and attitude worthy of it. Amen. ▮

오늘날의 주의 만찬 (마 26:24~29)



김성목 목사

오늘날의 교회의 방향

오늘날에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생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성장이나 쇠퇴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적거나 없는 교회는 죽어가며 교회의 구성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성경공부나 기도 모임, 성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중고생, 대학생, 및 어린이 사역 등을 고안하고 계획합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은 교회들은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날 여러분은 이 만찬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제 순종하며 메시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첫 성찬

첫 번째 성만찬은 유월절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예들을 취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을 잡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세기를 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기념 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나누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는 또한 잔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잔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분의 선언은 명백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달려진 어린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 어린양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념의 자리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진지하십니까?

영원한 성찬

우리와 함께 나누신 놀라운 진실 중 하나가 예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놀랍습니다. 예수께서는 에덴 동산이나 하와이나 어떤 세상의 목격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곳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와 마시게 될 포도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곧 죽을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련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놀라운 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짧은 말씀 속에는 위대한 축복이 담겨

"...반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되돌아보고 그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지금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죽으심을 통한 은총이 있습니다.

죽으심을 전하는 시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나 기적 또는 가르침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의 위대한 업적들만 늘어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애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완벽하며 죄 없는 것에 대해 잘 압니다. 그분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강력한지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의 가르침과 예수의 교훈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기적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잘 압니다.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일곱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셨으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으며, 물위를 걸으셨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으며, 그 외에도 믿지 못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죽으심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몸과 피가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서진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말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죄인이 예수의 죽음과 관계 맺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고

주의 만찬 이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갈릴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30절). 그리고 그 곳에서 예수께서는 붙잡혀셨습니다. 그의 몸(메이진 떡과 피(포도주 잔)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찢긴신 몸과 흘린신 피가, 죽어도 마땅한 우리의 죄 값으로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축복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해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경건함으로 나아오라

주의 만찬은 과거에 대한 표지이며 미래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의 식탁은 그의 죽으심과 천국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주의 성찬의 식탁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므로 성만찬은 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것을 더 고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사랑과 예배로 가장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엄숙한 만찬에서 놀라운 구세주를 만나도록 부를 받았습니까. 무식하거나 불순하게 또는 자비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성만찬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참석해야만 합니다. 아멘. ■

상천하지(上天下地)에 우리 하나님

김 신 국 (집사, 아멘찬양대 스리랑카 단기선교단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아멘 찬양대 단기선교단이 조직되었고 CMTC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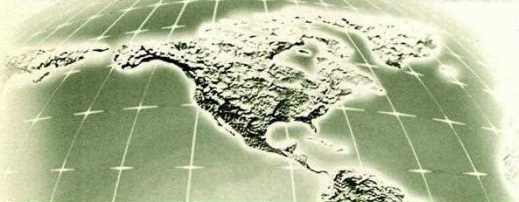
기도회 및 영성훈련, 언어훈련, 현지어 찬양연습, 선교정보 수집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 아멘 단기선교단원들은 해외 선교경험이 전무한 터라 여러 가지 열려가 많았다.

우리는 비정상이리라 만큼 많이 모이고 혼란하며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 해 보았다. 그러나 연세에 비교적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로 구성되어 평균 연령이 54세가 되었던 터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던 할수록 더러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스리랑카를 다녀온 단원들과 선교 위원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으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6월 21일, 단원 전체 아침 금식을 시작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철야 영성훈련을 시작했다. '우리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 주십시오' 하고 오랜 시간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와 개인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랐다. 처음에는 서먹한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점점 간절해지면서 성령이 우리 모든 단원들과 함께 함을 모두가 알게 되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얻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기생 랍합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상전하지에 하나님이라"(수 2:11)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여 많은 결실이 있을 줄을 믿게 되었으며 전원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

기도제목

1. 우리가 먼저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2. 우리의 모든 열려를 주님께 밀릴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구레대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라 가셨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망치로 양 손과 발에 못을 깊이 박았고, 십자가를 세워 구덩이에 집어 넣었다. 십자가 세워졌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온 몸이 뒤틀렸다. 군병들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옆에 달려 회개하는 범죄자에게 당당하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동안 지배자들은 그를 비웃으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 27:42)라고 소리를 쳤다. 예수님께서서는 정말 그들의 말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할 수 없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세 시간이나 지난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 후속은 세 시간 가량 계속되었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쳤다. 이 유기(遺囑)의 외침이 있는 직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어 열병진 고통이 육체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죽음의 사역이 있음을 나타내셨으며, 마지막으로 평온하고 확신있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업적에 주목하게 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업적은 전인하게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에게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고의적으로, 자유로이,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대신에 십관을 받으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하나님께 소의복을 상징하던 정소의 화장을 위해서부터 밀로로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다이어로 계속 (이성복 목사)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십자가 군병들

박 현 숙 (파적사, 9교구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단원)

2002년도에는 천 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속에서는 설레임과 망설임, 두려움까지 교차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백 명도 아니고, 천 명이나 보내나...!

그러나 부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불쌍히 주심이 이 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생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의 고백이 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단기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심이 감사했다. 밀레이 금식기도와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단원 전체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길 간구하였다. 특히 선교찬양과 언어훈련에는 자신이 없었던 단원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부림되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나의 것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창 23:28)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유성이 저 멀리 하늘에서 들리는 듯하다. 창천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주의 군사되어 주 예수만을 위하여 싸움터로 나가는 9교구 단기 선교단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요 잊으시겠습니까?

- 기도제목 1.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개탄된 땅이 되게 하소서.
2. 성령충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박해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3. 영육간의 장전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 2002 충원 단기선교 2차팀(7월 첫주) 파송 ◎

부서	사역지	날짜
13교구	우즈베키스탄	7월 2(화요일)-13(월)
기브라델	몽 골	7월 2(화요일)-12(금)
17교구	카자흐스탄	7월 2(화요일)-12(금)
에바다부	카자흐스탄	7월 2(화요일)-9(월)
아 멘	스리랑카	7월 2(화요일)-12(월)
9교구	카자흐스탄	7월 2(화요일)-12(월)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5(월)-17(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중 은 숙 (에바다부)

신학교에서 세계 교회사 강의를 들을 때 '선교의 세기'라는 책을 읽어오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는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맨 처음 읽을 땐 지루하고 졸림이 따분했으나 점점 내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지루한 줄을 몰랐다. 선교사들이 정말 충성되어 있었었다. 책을 읽으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더욱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졌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5대강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전에도 일본에 한번 선교를 갔다는 적이 있으나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3월부터 에바다부에서 자체 교육을 시작했는데 한 30명 정도 지원하였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지원한 사람들은 단기선교사로 뽑히지 않더라도 알 수 없으나 주일 찬양 예배 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성경공부에 임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선별의 시간을 기다렸다.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가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2명의 단원이 뽑혔는데 나도 포함되어 참 기뻐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훈련이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 매주 금요일 기도회에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공부와 러시아어와 수화를 배우며 준비하였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나 다른 복음만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루 종일 주님과 지친 선교단원들의 피곤한 몸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농아인들에게 '수어(手話)'라는 아름다운 언어를 주셔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세상 모든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하다. 복음의 불모지인 농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앞으로 우리 충원 에바다부에서 많은 농아인 선교사가 배출되고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충원 기도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아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게 되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도록 모든 충원의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살람

내가 가야 할 산

김미선 (청년부)

본문: 창세기 22:1-14

4월이 되면서, 그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작년부터 생각해 오던 일이었기에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문제가 더불어 시도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저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점점 지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먼저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산입니다. 산에 올리고 올린 게 나무일 텐데, 사울 길을 가야하는 먼 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환의 동행은 거부합니다. 아들을 갈로 잡는 순간에 말씀을 막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사환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취하여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다. 저의 계획이 들어졌을 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려 했습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가 가야할 산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제가 가야할 산은 순종의 산이며 믿음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산을 향하려 합니다. 혹 번심하지 모르니 나무 한 짐 든 듯이 해 가지고 말입니다.

종은 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종원 (청년부)

본문: 암 7:10-17

내용: 이스라엘의 제사장 야마사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건너와 예언하는 아모스가 모반을 한다고 고한다. 또한 야마사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로 가서 예언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모스는 야마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야마사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다.

해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위를 갖고 있던 야마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왕의 권력을 더 신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에 비해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고 그 외의 어떤 소리에도 집착하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십자가를 앞두고 회유와 놀림을 당하면서조차 '부실함'처럼 얼굴을 굳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던 야모스는 모든 천지자들과 신앙인들의 본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

적용: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성경공부 할 때나 설교를 들 때에 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만만 떠나 말씀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나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하나님,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상의 유혹에서 도차 얼굴을 부실토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굴을 굳게 앉으신 주님 안에서만이 제가 유혹에서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돌건조인의 삶 속에서 말씀에 목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충만한 하루,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묵상은 왜 해야 하는가? ②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 삶을 원한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단' 하고 보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수준 높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 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떤 존재(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과 같은 물질주의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그가 어떤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회중들에게 설교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설교하지 않거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영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기지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사탄에게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임사자가 마르지 아니할 줄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시 123)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절을 찾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임사자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자나 많은 영매와 부를 가진 자가 복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둘·란·우·신·주·의·이·름

8. 묵수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묵수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묵수했던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는 묵수로 불렸으며 그것으로 인해 꾀박을 당했습니다(막 6:3,4).

예수는 묵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위대한 왕이나 로마를 압제할 군인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의 틀입니다. 구약은 그가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사 52, 53장). 그러나 인간들은 분명히 있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묵수했다는 것을 잊었듯이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면서도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였으며 백성들 자신에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막 12:37). 요셉에게 온 손녀들이, 요셉을 돕는 예수를 보고 특별대우를 했을까요? 그가 특별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손녀들을 위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묵수의 삶을 사신 예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에게는 친절하며 겸손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배울 것이 있거나 나중에도 도움 받을 만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선입견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관심을 잘 아는 자들이 복음을 더 잘 수용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집사들이 귀찮아 일론 돈을 주어 내어 쫓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냐 아니냐"라며 배척했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는 많은 능력을 행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어울렸던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 예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믿는 자들이 늘었겠죠. 하지만 예수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즉, 명예를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만 능력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묵수이신 예수의 방법입니다.

작은 천사들의 선물

예수님의 기도

송민진 (유아부 믿음 7반 교사)



작지만 순수하고, 서툴지만 진실된, 사랑을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

흰 눈이 소복이 내린 지난 겨울, 난 이 작은 천사들을 충원교회 유아부실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호기심 가득한 두 눈을 빛내며 설레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내 살, 다섯 살배기 아이들을 보며 아직 어린 나보다 더 어린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사랑스런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예매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키만큼 훌쩍 자라난 나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그 동안의 많은 깨달음들을 세상 발견하게 되었다.

흰 눈이 내리던 지난 겨울의 그 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양" 하고 움음을 터뜨리던 아이들.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나의 말에 자못 진지한 얼굴로 "진짜? 예수님이 성인이 사랑하신대요? 음..." 성민이도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웅얼거리던 우리반 성민이. 이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를 통해 나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사랑에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십자가의 고통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으로 흘릴 수 있는 맑은 눈물을 배울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축복 받은 지금의 내게 더해진 책임은 이 값진 선물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의 말과 주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깨닫힌 영혼들의 마음 밑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이 맑고 순수한 만큼 그 밑에 말씀을 심는 나의 손이 조심스레 주재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오늘 밤, 유아부 교사로서, 또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의 작은 천사들에게 배운 그 큰 믿음으로 그 분께 간구하고자 한다.

'주여, 나를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So help me God.'

김재경 (소년부 소망9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말씀을 시작하실 때가 어렵듯이 떠오른다.

붉은 옷을 입은 천구들을 일어나라고 하시며 붉은 색이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고 하시며 설교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으로 머물며 한번의 피난 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단 한번만 고스트러운 피를 흘리신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흐르듯이 땀이 땀방울이 흐르듯이 되었다고 하여 감격 놀랐다. '얼마나 기도하 간절했으면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되었을까' 하고 말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면 누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설교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신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난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가슴이 쫄렁해지는 말씀이라고 느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두려웠더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굳히셨음을 보고 기도의 필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기도를 해야한다고 느꼈지만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지내왔다. 기도를 한다면 겨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식사기도 하는 정도 뿐 다른 별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땀이 피 흐르듯 열심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예수 천국 짹짹 짹

믿음

김은수 (소년부 믿음의 부회장)



김원형 (유년부 2과 5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못해서 상을 못 받았다. 여름성경학교 때는 전도를 해서 상을 받았다. 여름성경학교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찬양대 하면서 어렵기도 하지만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다. 마귀가 쫓 물러간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무얼 배울까 궁금하다. 교회 가는 것이 참 재미있고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런데 사실은 기쁨은 안 피곤하고 몸은 피곤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많이 아팠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지금도 감기가 잘 걸리고 기침도 많이 한다. 안 아프고 어디든지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에 뽑힐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수요일마다 제자학교를 하는데 성경을 배우니까 참 재미있다. 나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출근 출도 교회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다.

예-수 천국, 짹 짹 짹 짹!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현장학습으로 남산타워 '환상의 나라'에 갔었습니다.

가짜인물 알면서도 귀신이나 해골의 모습에 벌벌 떨고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 저는 연약한 믿음을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배우고, 듣고, 훈련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대대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로 원로(박)의도
일시: 7월 1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0호
2. 안수집사 회오(박)의도
일시: 7월 2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0호
3. 구교원회(박)의도
일시: 7월 15일(수) 15:30
장소: 성서회관
4. 전사(박)의도
일시: 7월 21일(수) 수요일예배 후
장소: 성서회관
1. 김성관 은퇴행사
9:30 중대구(박) / 20일 밤세, 22일 밤세
2. 박동환 씨
박동환 씨도 부친, 김영아 권영의 시 부, 12:30 금(박) / 20일 밤세, 22 일 밤세
3. 정순복 씨
이선숙 집사 부친, 추모연 연수사의 경모, 12:30 금(박) / 22일 밤세, 24일 밤세
4. 최재철 씨
최재철 집사의 부친, 17:30 금(박) / 25일 밤세, 27일 밤세

남녀전도회

1. 바울 13월(박)의도
일시: 7월 21일(수) 구구모임 후
장소: 코이노마루
2. 마리아 12월(박)의도
일시: 7월 21일(수) 새벽기도 후
장소: 성서회관
3. 베드로 11월(박)의도
일시: 7월 21일(수)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307호

별세

1. 김성관 은퇴행사
9:30 중대구(박) / 20일 밤세, 22일 밤세
2. 박동환 씨
박동환 씨도 부친, 김영아 권영의 시 부, 12:30 금(박) / 20일 밤세, 22 일 밤세
3. 정순복 씨
이선숙 집사 부친, 추모연 연수사의 경모, 12:30 금(박) / 22일 밤세, 24일 밤세
4. 최재철 씨
최재철 집사의 부친, 17:30 금(박) / 25일 밤세, 27일 밤세

임양가족 초청

민박을 원하여 가정
심방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실시
하는 해외 입양아 및 입양가족
을 초청하고자 하여 민박 가정
을 신청받았습니다. 이들이 머무
는 기간은 7월 13일(목) 이후
3시 30분에서 다음달 14일
(주일) 오후 3시까지로 1박 2
일입니다. 초청가족은 17가정
으로 44명입니다.
민박을 원하는 가정은 신
교원회합과 각 구교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신교원회합(35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1. 김성관 은퇴행사
9:30 중대구(박) / 20일 밤세, 22일 밤세
2. 박동환 씨
박동환 씨도 부친, 김영아 권영의 시 부, 12:30 금(박) / 20일 밤세, 22 일 밤세
3. 정순복 씨
이선숙 집사 부친, 추모연 연수사의 경모, 12:30 금(박) / 22일 밤세, 24일 밤세
4. 최재철 씨
최재철 집사의 부친, 17:30 금(박) / 25일 밤세, 27일 밤세

주교총신

1. 김성관 은퇴행사
9:30 중대구(박) / 20일 밤세, 22일 밤세
2. 박동환 씨
박동환 씨도 부친, 김영아 권영의 시 부, 12:30 금(박) / 20일 밤세, 22 일 밤세
3. 정순복 씨
이선숙 집사 부친, 추모연 연수사의 경모, 12:30 금(박) / 22일 밤세, 24일 밤세
4. 최재철 씨
최재철 집사의 부친, 17:30 금(박) / 25일 밤세, 27일 밤세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2년 7월 첫째~2002년 6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전도전 1월~10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2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등

교육관 사무실 이동

‘교육관’ 사무실이 제1교육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동한 사무실을 숙지하고 방문에 착오없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여름수련회

Jesus send me!
일시: 7월 2일(화)~5일(금) 장소: 충현교회원

장년2부 여름수련회

20:00~21:00(일) 17:00 장소: 교육관2층 유아부실

장년2부 여름수련회

“그대들 내로와 놀아라”(창 3:7)
일시: 7월 2일(화) 10:00~21:00 장소: 갈릴라움

교정전도회 여름수련회

하나님께 헌신하여 청소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봉사할 수 있는 교사를 찾습니다.
일시: 8월 5일(월)~9일(금) 장소: 춘천 정보통신학교 문의: 박영덕 전도사(011-285-3723)

에바다부 주일 차량봉사자 모집

에바다부에서 주일 차량봉사자 모집합니다. 교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기간: 주일 07:30~09:00, 12:30~13:00 문의: 에바다부 사무실

춘천소년년 차량봉사자 모집

교정전도회에서 매주 토요일 춘천소년년 차량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기간: 토요일 07:00부터(6주일에 한번 봉사) / 문의: 교정전도회 박영덕 전도사(011-285-3723)

2002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0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장로회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서류접수: 2002년 6월 23일(주일)부터 7월 14일(주일)까지 3주
3. 신청장소: 교육관
4. 문의: 교육관 (☎552-8200 4072)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5	안보조	1	창년2부	471	김건희	6	창년2부	지정년(17)	
466	전하라	1	중동부	472	문수탁	7	바울	정순자(13)	
467	윤호	19	창년1부	473	정순식	7	바울	정순자(13)	
468	심은경	19	창년1부	474	이득경	12	에바다부		
469	이수희	6	창년2부	475	전영호	16	에바다부		
470	박영숙	19	창년1부	476	김용호	16	에바다부		

7월 주일 및 수요일에 기도 응답

월	일	I	II	III	IV	V	찬양예배 (안수집사)	수요일예배 (권사)
7	7	박영덕	한용철	차신득	전홍필	이종철	이종철	유인숙
	14	이형수	노광현	이태식	한용규	이방용	박복래	이정자
	21	김지철	김구형	이창호	김종구	권영진	김은철	김정숙
	28	엄필성	이훈	이희영	오진국	조인재	이병희	김은주

다음주 새벽기도 담당

월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참고자	나광영	전진호	김종우	이성철	서광진	정태성	이종래
기도자	고재석	장희철	이성철	신광철	박태진	조옥자	장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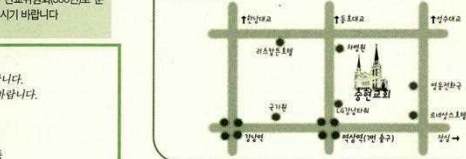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인사팀(남 50세 이상)·유양팀(남 50세 이상)
2. 자격: 세례교인
3. 지역: 서울·지방·이러서·주변동등·일정한 추천서(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5. 문의: ☎ 552-8200

성서교 총신교회

교회 요지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참석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0: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전 11:00 (주일 제외)	본 당
V	오전 11:00 (주일 제외)	본 당
찬 양 예 배	오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주일 제외)	본 당
금 요 집 회	오전 7:30	본 당
세 배 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전 회	시 간	차 량
최종교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분당알뜰
김요셉교회	오전 11:00	버스: 김요셉교회 분당알뜰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신광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유인숙 최태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현
- 신광철 최태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현
- 이훈 남신우 정은숙 김영길 문용주
- 전홍필 322구 62구 62구 62구 62구
-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김진세 이창호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식 윤성철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이희영 이병용 안종우 임무현 이종식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최기용 이강재 정용호 전홍필 이경우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정홍식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환기 한용철 이형수 안동현 박희만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영 이태식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정태부 박용규 권영호 조종환 배준식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영일 이철호 박관식 최희용 노영환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박철규 정정길 송상수 김철형 고재호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영은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부목사

- 이종래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서광진 정태성 이종철 박인기 여정자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류병희 노광록 이종철 김용호 여정자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요셉 송길환 이수근 이윤진 안창덕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방영준 나광영 전진호 강영덕 이성숙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고광환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찬양감독 김성구
- 감 도 시 이정철
- 여전도사
- 정현희 김경자 송화자 신동자 유인숙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옥을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김관자 안태순 최진식 김경연 조옥자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강덕표 김경진 정태성 최문식
-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유인숙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전도사 정은희
- 단기전도사 장기업(소의장)
- 단기전도사 최은아(소의장)
- 협회전도사 허효섭(소의장)

충현증보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의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교구별 태산전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성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